



2010-2학기 특별보충채플

2010.12.2(목) 3:00~4:00pm 2010 이화가족 성탄예배
 2010.12.7(화) 6:30~7:30pm 남성교수중창단과 뷰티콜 마인드 앙상블
 2010.12.12(수) 6:30~7:30pm 꿈이 보이는 희망콘서트
 * 총 3회입니다.
 * 신청절차 따로 있습니다. 시작 20분전부터 선착순 입장합니다.

이대 학보

inews.ewha.ac.kr

The Ewha Weekly

2010년 12월 6일 월요일 제1391호

본교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 26.7명

정외과...교원 법정 정원보다 32.7명 초과 예체능 계열...교원 법정 정원 최다 초과

본교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 1인당 재학생 수가 교원 법정 정원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별로는 예체능 계열이, 학과별로는 정치외교학과(정외과)가 법정 정원 초과 폭이 가장 컸다. 본교 대학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는 서울대, 경희대, 연세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가 법정 정원을 가장 많이 초과한 계열은 예체능 계열이었다. 10월 발표된 대학정보공시자료에 따르면 본교의 예체능 계열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는 45.4명으로 교원 법정 정원 20명보다 25.4명 많았다.

인문사회계열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도 33.7명으로 법정 정원 25명보다 8.7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과학계열과 공학계열도 각각 28.2명, 22.2명으로 법정 정원인 20명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의학계열만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가 4.1명으로 법정 정원 8명보다 적었다.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가 법정 정원을 가장 큰 폭으로 초과한 학과는 정외과로 집계됐다.

정외과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는 인문사회계열 전임교원 법정 정원 25명보다 32.7명 많은 57.7명이었다. 법정 정원을 18.6명 초과한 인문과학부(43.6명), 18.3명 초과한 국제학전공(43.3명)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학기 정외과에 개설된 강좌는 모두 14개로 이 중 7개의 과목만 전임교원이 담당하고 있다. 전임교원이 담당한 수업 중 일부 강좌의 수강 인원이 100명을 훌쩍 넘겼다. 남궁곤 교수(정치외교학과)의 '국제정치이론'은 137명의 학생이, 김수진 교수(정치외교학과)의 '선거와 정당'은 121명의 학생이 수강 중이다.

정외과 학생들은 전임교원 수가 적어 학생과 교수 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학생들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가 교수 증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현(정외·08)씨는 "전임교원 대비 재학생 수가 적은 사회학과 친구들은 교수님들과 자주 면담을 갖고 종종 학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한다"며 "학교 차원에서 교원을 충원해 정외과 학생들의 교육 여

건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외과는 점진적인 정외과 교원 증원 계획을 밝혔다.

정외과 남궁곤 전공주임교수는 "대학 전체 차원에서 보면 전임교원 증원을 위해 예산 및 전공별 교수 수요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시에 많은 전임교원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점진적인 증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월부터 전임교수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해왔고, 2011년 1학기 2명의 교원을 임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본교의 전체 전임교원 1인당 전체 재학생 수는 26.7명으로 집계돼 서울대(15.9명), 경희대(23.6명), 연세대(23.7명)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자가 대학정보공시자료에 따라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등 서울 시내 주요 10개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본교는 경희대(23.6명), 연세대(23.7명), 성균관대(24.0명), 고려대(25.0명)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대(15.9명)로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11년부터 5년간 운영하는 '대학교육역량 인증제'의 필수평가준거 중 하나다.

대교협은 필수평가준거와 일반평가영역에 따라 대학을 심사하고 2014년부터는 정부가 심사 결과를 반영해 각 대학에 일반화 자금 대출, 대학 연구간접비 산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2004년부터 시행된 'QS세계대학평가'는 권위를 인정 받는 글로벌 대학평가 중 하나다. 'QS세계대학평가'도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대학이 학생 교육에 투자하는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로 간주해 평가 항목 중 20%를 할애하고 있다.

본교는 '2009년 대학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전임교원 확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권장하는 교원 법정 정원에 근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슬기 기자 redwin2026@ewhain.net
김정은 기자 kkel206@ewhain.net



2일(목) 오후3시 대강당에서 열린 '2010 이화가족 성탄예배' 성탄축하 공연 중 음대합창단이 캐롤을 부르고 있다. 성탄예배에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채플 특별보충이 인정됐으며, 다음 특별보충 채플은 7일(화) 오후6시30분 '남성교수중창단과 뷰티콜 마인드 앙상블', 8일(수) 오후6시30분 '꿈이 보이는 희망콘서트'다. 사진: 배유수 기자 baeyu@ewhain.net

4학년 93.9% '취업 로열층 존재한다'

어학연수·제2외국어·전문자격증 등도 월 평균 소득과 상관관계

「(컴공·07)씨는 토의 600점 이상이 자격 조건인 소프트웨어 기업 취업을 준비하던 중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부모님의 지원으로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사촌언니가 인턴에 발탁된 것을 계기로 국제 회사에 취직했기 때문이다. 「씨는 집안사정이 좋지 못해 어학연수를 쉽게 생각할 수 없었다. 「씨는 "사촌언니는 1년 간 취업이 되지 않자 쉽게 유학을 결정하려"며 "스펙도 노력보다 돈으로 쌓을 수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친구 사이인 「(문정·07)씨와 「(문정·07)씨는 높은 영어실력이 필수조건인 대학 도서관 사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씨는 뉴욕주립대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후 영어회화 학원에서 공부 중이다. 「씨도 영어회화 학원에서 실력을 쌓고 싶었지만 100만원 이상의 학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수강을 포기했다. 「씨는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가 형편이 넉넉해 취업준비를 잘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와 시장조사 전문기관 이지서베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생 478명을 대상으로 '가정 월 평균 소득과 취업준비의 상관관계'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9%가 가정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취업 로열층'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정 월 평균 소득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어학연수, 취업 사교육, 희망직무 관련 전문교육 경험이 높았다.

가정 월 평균 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대학생은 25.4%가 해외어학연수 경험이 있었다. 가정 월 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22.9%,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16.3%가 해외어학연수 경험이 있었다. 가정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대학생은 2.1%만 어학연수를 다녀왔다고 응답했다.

취업 사교육 역시 월 평균 가정 소득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제2외국어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대학생의 비율은 월 평균 가정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정에서 15.5%, 200만원 미만인 가정에서 4.2%로 약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전문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대학생의 비율도 월평균 가정 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정에서 33.8%, 200만원 미만인 가정에서 16.7%로 2배 이상 차이났다.

특히 '희망직무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대학생의 비율은 월 평균 가정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정에서 7%로 가장 높았다. 월 평균 가정 소득 200만원 미만의 대학생은 4.2%만이 희망직무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씨는 "부모님은 아나운서라는 내 꿈을 위해 모든 비용을 지원해준다"며 "작년 9월~11월 3달간의 아나운서 아카데미 학원비를 부모님께 지원받았고, 이번 겨울방학 때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업·인사 포털 인크루트 홍보팀 신진숙 책임은 "집안 형편이 취업용 스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재강 기자 lck0728@ewhain.net
정서는 기자 west_silver@ewhain.net

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평가 제2분야 1위 선정

중앙도서관(중도)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수행한 2010년 대학도서관 평가에서 제2분야 대규모 도서관 1위(837점)를 차지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대학도서관 평가는 58개 대학을 대상으로 계약 지표·운영 정도·이용자 만족도 평가를 통해 10개의 우수 대학도서관을 선정하고, 현장 평가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도는 제2분야 '콘텐츠 확충과 대학 내 지식정보의 역할 강화'에 지원해 우수 대학도서관으로 선정됐다.

중도는 ▲온라인 저장 공간인 기관리포지토리(dCollection EWha)를 이용해 연구 성과물을 수집·보존·서비스한 점 ▲고사와 개회기 교과서를 디지털화해 귀중 자료의 원본을 보존하고 이용을 활성화 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교과부는 중도에 포함 및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영민 도서관장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 본교 도서관에서 수행해온 지식정보 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안은나 기자 insatiable@ewhain.net



왼쪽부터 이용민 박사, 슈니처 후쿠주미 교수, 남원우 교수 사진제공: 남원우 교수

남원우 석좌교수팀 친환경 촉매 원천기술 개발

남원우 석좌교수(바이오융합학과)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산소화 효소 중간체 생성을 통한 친환경 광촉매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11월28일(일)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학회지 '네이처 케미스트리(Nature Chemistry)'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남원우 석좌교수, WCU 소속 슈니처 후쿠주미 석좌교수(바이오융합학과) 및 이용민 박사(구조화학연구소 특임교수)가 공동으로 주도했다.

남 교수의 '산소화 효소 중간체를 통한 친환경 광촉매'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중금속 촉매의 대체제인 친환경 촉매 생산에 필요한 원천기술이다. 산소원으로 물을, 에너지원으로 가시광선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산업체들은 유기물 산화 시 주로 중금속 촉매를 사용해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한다고 지적 받아왔다.

남 교수는 "이번 연구는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라며 "물을 산화시켜 다양한 산화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와 산소를 만들어 오염 없는 대체에너지와 촉매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주연 기자 yksbjy@ewhain.net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49명 전체 대학별 합격자 순위 6위

3차 면접에서 1명 탈락해 최종 49명 합격 올해 합격자 여성 비율 최초로 40% 초과

법무부가 11월26일 제52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본교 출신 합격자는 전체합격자 814명 중 49명(6.02%)으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이어 전체 대학 순위 중 6위를 차지했다. 합격자 중 법학전공생은 45명, 타 전공생은 4명이며 재학 중 합격자는 1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사법시험 전체 합격자 중 여성은 338명(41.52%)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40%를 넘은 것은 역대 최초다. 최근 5년간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6년 37.7%, 2007년 35%, 2008년 38%, 2009년 35.6%였다. 수석합격자는 서울대 4학년이 재학 중인 장민하(법학·06)씨다.

이영심(법학·03년졸)씨는 다섯 자매 중 넷째로 언니 이영희(법학·94년졸)씨와 막내 동생의 뒤를 이어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안은복(법학·04)씨는 "최종합격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며 "또 다른 시작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시험을 위해 오랜 시간 공부하느라 여행을 다니지 못한

점이 아쉬워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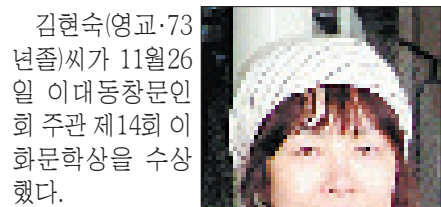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송덕수 학장은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작년보다 약 200명이나 줄었다"며 "그럼에도 49명이 합격한 것은 매우 좋은 성적이며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올해 3차 면접시험에는 32명이 심층면접에 회부돼 그 중 8명이 불합격했다. 불합격자는 내년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심층면접제도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기존 3차 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기능 회복을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됐으며, 일반면접 실시 후 추가로 집중면접이 필요한 응시자를 추출해 심층면접에 회부하는 제도다.

올해는 2017년 사법시험 완전 폐지와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첫 졸업자 배출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순차적으로 줄인 첫 해다. 합격자 수는 작년(1997명)보다 18% 가량 감소했다.

내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약700명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내년 1월3일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된다. 안은나 기자 insatiable@ewhain.net

김현숙 소설가 이화문학상 수상



김현숙(영교·73년졸)씨가 11월26일 이대동창문인회 주관 제14회 이화문학상을 수상했다.

김씨의 당선작인 『노을진 카페에는 그가 산다』는 단편 소설집으로, '노을진 카페에는 그가 산다' 등 9편의 단편 소설이 수록돼 있다.

이화문학상 심사를 맡은 이인화 교수(국어국문학과)는 "김현숙씨는 섬세한 내면을 가진 중년 여성의 갈등과 순수 욕망을 잔잔하게 그려냈다"며 "독자를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쉬지 않고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일에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정서는 기자 west_silver@ewhain.net

대학원 학생회장 이혜경씨 선출



이혜경(여성학 석사)씨 대학원 학생회장 선출

제60대 대학원 학생회장 선거는 11월23일~25일 3일간 치러졌으며 11월30일 당선 여부가 공표됐다. 이혜경 후보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을 '자유로운 집단지성'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출마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출마 당시 ▲대학원 학생회 장학금 신설 ▲인문학술 교류 강연회 개최 ▲연구공간 실험과 및 학대 등의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한주희 기자 hjh230@ewhain.net

이대학보는 이번 호를 끝으로 2010년 학보 발행을 마칩니다. 다음 호(1392호)는 2011년 2월 발행됩니다.